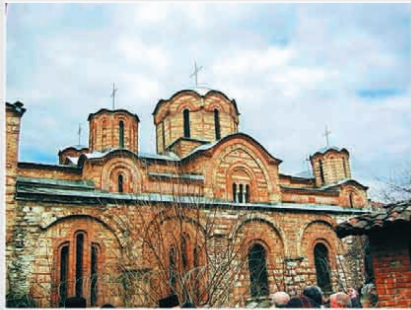




# 전쟁... 도시화... 위험 속에 놓인 '인류의 보물'

## 위험에 처한 주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르비아의 코소보 중세유적지**  
비잔틴-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기독교 유적. 13~17세기 발칸지역에서 발달한 벽화 등이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분쟁이 계속되면서 관리 부실과 미흡한 보존 시스템 등으로 2006년 위험유산 등재.



**예루살렘의 고대도시와 성곽**  
역사적 유적지 220곳이 산재한 그리스도교 및 이슬람교의 성지. 복잡한 국제정치적 상황 속에서 요르단의 신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나 과도한 관광객, 부실 관리정책, 무질서한 도시개발 등으로 유적이 훼손됨. 1982년 위험유산에 등재.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문화경관과 고대유적**  
불교미술 간다라 학파에 문화적 영향을 미친 박트리아의 예술적 흐름을 잘 보여주는 유적. 이슬람 시기의 요새벽과 불교사원, 신전들이 모여 있음. 탈레반이 석불 두 개를 로켓포 공격으로 파괴한 데다 약탈과 도굴 등의 위협으로 2003년 위험유산 등재.



**이란의 밤 지역 문화경관**  
사막 지대에서 진흙을 이용해 세운 요새도시의 전형. 기원전 6~4세기 아카메니드 왕조 때 시작돼 7~11세기 주요 교역로의 중심이 됐음. 2003년 대규모 지진으로 성벽을 포함한 도시 건축물 상당수가 무너져 큰 피해를 입음. 2004년 위험유산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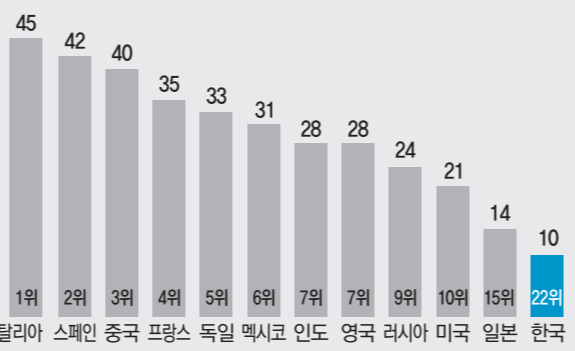
### 유네스코가 정의하는 유산(heritage)

"우리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현재를 함께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유산"  
(Heritage is our Legacy from the past, what we live with today, and what we pass on to future generation)

### 세계유산 분포



### 국가별 등재 세계유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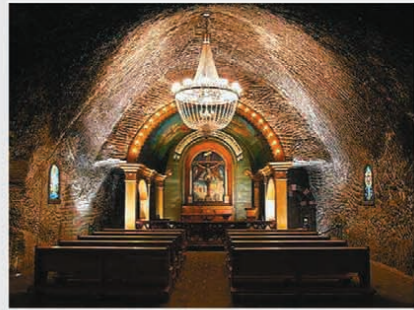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 유산

-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 1997년 창덕궁, 화성
- 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 2007년 제주 화산섬·용암동굴
- 2009년 조선왕릉
- 2010년 하회마을·양동마을

## 복구 및 보존 성공 사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  
9~15세기 크메르 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유적지 중 하나. 도굴과 유물 약탈, 크메르 루주 정권이 몰아붙인 지뢰 등으로 유적이 크게 훼손됨. 유네스코의 지원 등에 힘입어 1993년부터 계속된 복구 작업으로 사원의 모습을 되살리는 데 성공.



**폴란드의 비엘리치카 소금광산**  
1978년 지정된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 12개 중 하나. 지하의 소금광산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소금 제단과 조각상, 벽에 조각된 부조 장식 등이 부실한 환기장치로 인한 습기 때문에 손상됨. 제습시스템 구축 등의 시도를 9년간 계속한 결과 복구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짐.



**그리스의 델피 고고유적지**  
해발 500m 바위산 중턱에 신전터와 기둥, 원형극장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음. 1987년 유적지 근처에 알루미늄 공장 건설 계획이 추진됨. 공장건설 용지를 변경해 달라는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의 요청을 그리스 정부가 받아들여 따라 세계유산의 가치 유지.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사원**  
8~9세기에 지어진 불교사원으로 19세기 재개발되기 전까지 1000년 가까이 밀림 속에 묻힌 채 지치돼 왔음. 1972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발굴 시도가 10년 넘게 계속된 끝에 복구 작업이 끝나 세상에 빛을 보게 됨.

**GREAT** Work Passion Achievement

**KU** 건국대학교  
KONKUK UNIV.

## 건국대처럼 대학이 먼저 꿈꾸면 학생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건국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1차 신입생 모집

● 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대학, 재정이 튼튼한 대학  
● 인문·수학 분야 입학사정관전형 'KU 전국적발전형' 신설  
● 차세대 아시아 리더 양성 '중국 통상 비즈니스전공' 신설  
● 노벨상 석학 교수 3명 초빙 'KU 글로벌 연구실' 운영  
● 핀란드 VTT 독일 프라운호퍼 등 세계적 연구소 유치  
●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법학 의학전문대학원 만족도 최상위

'오유비(OUV)'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 표현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의 약자다. 양적으로 유일하거나 희귀한 유산 가운데 이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다. 유네스코가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을 제정한 이래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187개국. 협약의 기준에 따른 세계유산 선정 작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51개국 911점의 세계유산이 리스트에 올랐다.

## 151개국 911곳 세계유산 등재 이 중 34곳은 '위험유산' 분류

기까지 3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합친 '복합유산'이 늘어나면서 세계유산의 개념과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상당수가 유럽과 북미지역에 치우쳐 있어 국가 간 편차와 불균형 문제가 제기된다. 이달 초 브라질 브라질리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나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같은 유네스코의 자문기구가 소속 전문가들의 현장 방문 및 가치 분석, 관리 실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등재 '권고'나 '보류' '반려' 등의 의견을 올린다. 이를 바탕으로 21개 위원국이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정치가 끼어들면 유산 보존 힘들어진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반다린 소장 인터뷰



"도시화와 개발의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관련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 이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해지는 추세다. 기후변화의 경우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기후변화가 세계 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비합리적 분쟁-잘못된 관리 총체적 난국이 유산을 망쳐 기후변화도 위험요인 부상

내전, 약탈, 기후변화, 개발과 도시화, 빈곤으로 인한 관리소홀과 방치... 인류의 세계유산 상당수는 각국의 보존 노력에도 끊임없는 파괴 및 훼손 위협에 노출돼 있다. 유네스코가 선정하고 관리하는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World Heritage in danger)'은 지난해 31개에서 올해 34개로 되레 늘었다. 프란체스코 반다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소장(사진)은 이에 대해 "세계유산의 보존, 복구 작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3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총회에서 그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계유산을 보호하려 하지만 여전히 위험에 처한 것이 많다. 이를 막으려는 유네스코의 활동이 때로 무기력해 보일 때도 있다.  
"세계유산센터가 '지구'를 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노(No)'다.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와 국가가 유산의 보존작업에 나서도록 설득, 촉구하고 있다. 우리 시스템은 여전히 강력하고 효과가 있다."  
-최근 남에 띄게 증가 추세로 보이는 위험요인이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이 문제는 주권의 문

에서 열린 제34차 세계유산총회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은 문화·역사적 가치가 아닌 국력이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세계유산 중 34개는 보존 복구 작업이 시급하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World Heritage in danger)'으로 지정돼 있다. 탈레반이 폭파한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굴, 전쟁으로 파괴된 이라크의 유산들이 대표적이다. 오랜 내전에 시달려온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5개의 자연유산이 전부 위험유산 리스트에 올라 있다. 이런 유산들은 유네스코의 긴급복구 자금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성벽, 폴란드의 비엘리치카 소금광산 등은 지속적인 보존 복구 작업을 통해 위험유산 리스트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 사례다.

제다. 코소보 중세유적지의 관할을 둘러싼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갈등, 프레이비히어 사원에 대한 캄보디아와 태국 간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이 모두 그런 사례다. 올해 특히 논쟁이 많은 분야다. 세계유산총회는 이런 주권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주권은 '괴물(monster)' 같은 측면이 있다. 어디에나 개입하는 힘이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때로 비합리적이다.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의 경우 작은 아파트 크기 안 되는 땅을 놓고 싸우고 있지 않은가.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정보, 잘못된 관리 등의 총체적 문제가 만들어 낸 한 편의 글로벌 드라마다. 정치인들이 끼어들면(유산)보존 이슈는 없애지고 만다. 불행한 일이다. 사실 우리는 이에 대해 무기력하다. 긴장과 충돌을 완화시키려 노력할 뿐이다."

-유네스코 리스트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이 900개를 넘어섰다. 곧 1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유산의 '인플레이션'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에는 몇 개가 있나? (10개라는 대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라고 기자가 답하자) 그것 보라. 그게 답이다. 유럽 등에 등재 유산이 쏟아지는 지역편차의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이다. 지금보다 더 많아져도 전혀 문제없다고 본다." 브라질리아=이정은 기자 lightlee@donga.com

\*이 시리즈 기사는 유네스코의 협조에 동아일보의 판단과 관점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일반 정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whc.unesco.org)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